

崔致遠의 僧傳 撰述과 그 思想的 含意

- 『法藏和尚傳』과 『普德和尚傳』을 중심으로 -

崔 英 成*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IV. '普德和尚傳'과 그 思想的 含意 |
| II. 僧傳撰述의 動機와 憂患意識 | V. 맺음말 |
| III. 法藏和尚傳과 그 思想的 趨向 | |

I. 머리말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 857~?)의 철학사상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전공자들이 꾸준히 늘어났고 연구 주제가 세분화함에 따라 최치원 사상의 실체가 여러 각도에서 조명되었고, 또 상당히 깊숙한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¹⁾ 한국사상사에서 최치원이 차지하는 위치 역시 전에 비해 보다 확고해진 감이 없지 않다. 이제는 최치원에 대해 그저 '유·불·선 삼교에 회통(會通)했던 학자요, 우리 고유사상의 실체를 분석하여 풍류도(風流道)의 존재를 확인해 준 학자'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요, 보다 더 나아가 그가 동인의식(東人意識)으로 일컬어지는 민족주체의식과 뚜렷한 문명의식을 지녔던 사상가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연구 자료가 지닌 난해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주목할 만한 논문들이 꽤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를 보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상당히 세밀한 분석까지도 내놓고 있어, 최치원 연구의 미래적 전망을 밝게 한다. 이제는 최치

* 국립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1) 崔一凡, 「孤雲 哲學思想 研究의 回顧와 展望」, 『제1회 고운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孤雲學會, 1997, pp.49~58 참조.

원의 철학사상을 연구함에 있어, 종래의 연구들이나 연구방식에서 일정하게 탈피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전체적이고 총론적인 조망(眺望)에서 각론으로 이행(移行)되어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최치원의 사상적 입장과 경향은 한 마디로 '이렇다'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또 말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를 그의 전 생애에 걸쳐 통시기적으로 논해서는 곤란하다. 최치원의 전 생애를 통해 사상 경향에 따라 시기별로 나누어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치원의 사상적 본령을 왜곡하는 우(愚)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이미 확보된 자료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꾸준히 이어져야 함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본고에서는 최치원이 말년에 지은 여러 편의 승전(僧傳)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들 승전에 대한 면밀한 고찰은 그의 말년 발자취와 사상 경향을 살피는 데 더 없이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치원은 은거한 뒤 불교에 침잠하였다. 유자(儒者)를 자처했고, 유자의 길을 걸었던 그가 왜 스스로 불교에 침잠하였으며, 또 침잠할 수밖에 없었는가. 어찌하여 도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가? 이러한 점들을 우연한 것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이런 의문점들을 기초로 하여 최치원 사상의 완성기인 말년의 사상 경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로는 최치원이 찬한 승전 가운데 유일하게 전하고 있는 『법장화상전』과 최근까지 최치원 소찬(所撰)이라는 사실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보덕화상전』을 들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특히 『보덕화상전』을 중요하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주된 자료의 하나로 삼은 『법장화상전』은 일찍부터 여러 학자들이 주목해 왔지만, 『보덕화상전』의 경우 국사학자 노용필(盧鏞弼) 씨가 「보덕의 사상과 활동」²⁾이라는 논고에서 관심을 표명한 것 이외에 이렇다 할 연구 업적이 없는 듯하다. 노씨는 위 논문에서 보덕의 생애와 종교활동에 대해 다각도의 자세한 논증을 하였는데, 이는 필자가 본고를 작성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씨에게 사의(謝意)를 표해 둔다.

2) 『한국상고사학보』 제2호, 한국상고사학회, 1989 所收.

II. 僧傳撰述의 動機와 憂患意識

고려 때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이 편찬한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 권1을 보면, 여러 불서(佛書) 목록 가운데

『賢首傳』 一卷

『浮石尊者傳』 一卷 已上 崔致遠述

이라고 한 기록이 있다.³⁾ 최치원이 찬한 대표적인 승전을 소개한 것이다.

최치원은 위의 『부석존자전』(義湘傳) 『법장화상전』(賢首傳) 이외에도 『석순응전』(釋順應傳) 『석이정전』(釋利貞傳) 등 주로 화엄 고승의 승전을 찬술한 바 있다. 이들 4편 가운데 『법장화상전』은 전문이 온전하게 전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뒤에 나온 역사서에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그 일모(一貌)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부석존자전』은 『삼국유사』⁴⁾에, 『석순응전』⁵⁾과 『석이정전』⁶⁾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극히 일부가 전하고 있다.

백운거사(白雲居士) 이규보(李奎報)의 증언에 의하면, 최치원은 고구려 말기의 고승(高僧)인 보덕화상의 전기도 찬술하였다고 한다.⁷⁾ 비록 오늘에 전하지는 않지만 최치원 연구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다만 최치원 소찬(所撰)의 이 『보덕화상전』은 최근까지 최치원을 전공하

3) 『大正新修大藏經』 제55권, p. 1168 상단 참조.

4) 『三國遺事』 卷4, 義解篇 〈義湘傳教〉條에 나오는 ‘崔侯本傳’이란 바로 『부석존자전』을 말한다.

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9, 高靈縣, 〈建置沿革〉“又釋順應傳, 大伽倻國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絜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異腦王, 乃惱窰朱日之八世孫也. 然亦不可考”;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0, 陝川郡 〈古跡, 舉德寺〉“崔致遠釋順應傳, 其西崦兩溪交滌, 有蘭若號舉德, 往古大伽倻太子月光結緣之所云云”

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9, 高靈縣, 〈建置沿革〉“按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神正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窰朱日, 金官國王惱窰青裔二人, 則惱窰朱日爲伊珍阿鼓王之別稱, 青裔爲首露王之別稱, 然與鷲洛國古記六卵之說, 俱荒誕不可信”

7) 『東國李相國全集』 卷23, 「南行月日記」“普德字智法, 嘗居高句麗盤龍山延福寺. (……) 崔致遠作傳備詳, 故於此略之”

는 학자들마저도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 고려 때 금강거사(金剛居士) 이오(李顥 : ?~1110)가 지은 「삼각산 중수 승가굴기(三角山重修僧伽崛記)」를 보면, 최치원이 중국 당나라 때의 고승인 승가대사(僧伽大師 : 628~710)의 전기를 찬술한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 눈에 띈다.

최공 치원의 문집을 보니, “옛날 신라 때 낭적사(狼迹寺)의 스님 수태(秀台)가 승가대사의 거룩한 행적을 익히 듣고는 삼각산 남쪽에서 좋은 곳을 찾아, 바위를 뚫어 굴을 만들고 돌에다 조각하여 형상을 묘사하니, 대사의 도용(道容)이 더욱 동토(東土)를 비추었다. 만일 나라에 천지의 재변이나 수재(水災)·한재(旱災)가 있을 때, 그리고 모든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올려 이를 물리치고자 하면, 그 자리에서 반응 없는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⁸⁾

승가대사는 속성이 하씨(河氏)요 서역의 고승으로, 30여 살 때 중국에 와서 당나라 여러 황제들로부터 존승을 받았다. 세상에서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의 화신(化身)’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은 이적(異蹟)이 있었는데, 그의 전기에 실린 신이(神異)한 영험은 본고에서 간략히 소개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송나라 때에 와서 조산대부(朝散大夫) 장지기(張之奇)와 저작랑(著作郎) 유신(柳紳), 그리고 천수사(天壽寺)의 찬녕(贊寧)이 각기 승가대사의 전기를 지었고, 중조산거사(中條山居士) 신숭(辛崇)이 36항목에 달하는 행장을 지은 바도 있다.

위에 인용한 내용으로는 최치원이 승가대사의 전기를 직접 지었는지, 아니면 전기 아닌 다른 글에서 간접적으로 소개한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승가대사의 신령하고 기이한 행적이 신라에까지 널리 알려져 영험 신앙적(靈驗信仰的) 차원에서 크게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승가대사의 전기를 지었을 가능

8) 『東文選』 卷64, 「三角山重修僧伽崛記」, “案崔公致遠文集 : 「昔有新羅代狼迹寺僧秀台, 旣聆大師之聖跡, 尋選勝于三角山之南面, 開巖作窟, 刻石摸形, 大師道容, 益照東土, 國家如有乾坤之變, 水旱之災, 凡所可疑之事, 禱以禳之, 無不立應」”

위 記文의 일부는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 漢城府〈佛宇, 僧伽寺〉條에도 실려 있다. 그런데 『東文選』에서는 작자를 李預라 하고 『輿地勝覽』에서는 李顥라 하였다. 두 사람은 兄弟之間으로 모두 佛敎에 밝았는데, 특히 李顥는 불교에 몹시 심취하여 居士佛者로 자처, 自號를 ‘金剛居士’라 하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本稿에서는 작자를 李顥로 보고자 한다.

성은 높다고 하겠다. 위의 글에서 '開巖作窟, 刻石摸形, 大師道容, 益照東土'라 한 것은 승가대사의 비중을 우회적으로 알리는 바라 하겠다.

이상에서 소개한 5~6종의 승전으로 미루어 볼 때, 최치원의 승전에 대한 관심의 폭이 자국인 신라는 물론 고구려와 당나라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치원이 이들 승전을 찬술한 시기는 대체로 해인사(海印寺)에 은거할 때가 아닌 가 짐작된다. 이 승전들은 최치원이 산사(山寺)에 머물면서 그저 소일거리로 집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법장화상전』 말미에서, "이 전기를 찬수(撰修)함에 미처 자임(自任)하는 생각을 더욱 갖게 되었다"9)고 한 것을 보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집필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승전마다 한결같이 '우환의식(憂患意識)'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불승(佛僧)의 전기 속에서도 세쇠도미(世衰道微)한 현실세계를 걱정하고 이상세계를 제시하는 유자(儒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치원은 여러 고승들의 거룩한 발자취를 기술하면서 '우의적(寓意的)' 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비록 '문간의풍(文簡義豐)'하여 보는 이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말의 이면에는 당세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은근하면서도 간절하게 담고 있다. 『법장화상전』 후서(後序)를 보면 언뜻 '신세타령'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꿈'에 대해 길게 서술하고 있는데, 그는 이 글에서 꿈의 허망함을 자신의 암담한 처지와 결부시켜 감상적으로 서술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이상'이기도 하다는 이중적 의미의 '꿈의 철학'을 펴고 있다. 그가 몽감(夢感)을 펴 중시하였음은, 어쩌면 일개 나약한 인간으로서 현재의 불우한 자신의 처지를 자위(自慰)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꿈과 현실의 일체화'를 그리워하는 간절한 소망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는 편이 더 옳을 듯하다. 그가 생각하는 꿈과 현실의 일체화란 무엇일까. 다음의 글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듣건대 옛적에 공자(尼父)는 (꿈속에서) 주공(周公)을 보았고 고종(高宗)은 (꿈을 꾸 뒤) 부열(傳說)을 얻었으며,10) 신상보살(信相菩薩)은 금고(金鼓)를

9) 崔英成, 『譯註 崔致遠全集(2)』, pp.359~360 「法藏和尚傳」及「修斯傳, 自責增懷」
 ◎ 본고에서는 『譯註 崔致遠全集』 제1~2권을 기본 텍스트로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10) 商나라 高宗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늘이 良弼이 될 만한 신하를 啓

꿈꾸었고¹¹⁾ 보안(普眼)은 산신(山神)을 꿈꾸었다고 하니, 이들은 모두 꿈(靈遊)에 의탁하여 능히 미묘한 이치를 능히 융해(融解)하였다.¹²⁾

이로써 보면, 아마도 그가 회구하여 하지않았던 '새로운 시대의 열림' '새로운 인물의 등장'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요컨대, 최치원이 찬한 승전들은 그간 유교사학(儒敎史學)에서 매우 소홀히 다루었던 '승사(僧史)'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불교홍통(佛敎弘通)을 위한 삶을 살았던 이들의 업적을 기린 것일 뿐만 아니라, 이들 승전을 전기문학(傳記文學) 내지 역사 서술로까지 끌어 올렸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승들의 전기와 『사산비명(四山碑銘)』 같은 것은 독특한 구성과 사재(史才)를 잘 발휘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부석존자전』과 『법장화상전』은 우리 나라 승전의 전범(典範)으로서 이전 시기 김대문(金大問)의 『고승전』 등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사실상 이 두 승전에 이르러 정형(定型)을 갖추게 되었으니, 뒷날 고려시대에 들어 혁련정(赫連挺)의 『균여전(均如傳)』 및 각훈(覺訓)의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등이 나오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고 하겠다.

Ⅲ. 法藏和尚傳과 그 思想的 趨向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최치원은 화엄 고승들의 승전을 여러 편 찬술하였다.

示하였다. 이에 고종은 꿈에서 본 사람의 용모를 떠올려 肖像을 그리게 하고, 이를 천하에 돌려 널리 구하도록 하였다. 그 때 傳說이란 사람이 傳巖이라는 시골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 모양이 고종이 꿈에 본 사람과 꼭 같은지라, 마침내 부열을 擧用하여 宰相으로 삼고 훌륭한 정치를 기대하였다고 한다. 『書經』 <商書, 說命> 참조.

- 11) 신상보살이 꿈속에서 金鼓를 보았던 故事. 金鼓의 光大함이 매우 성하여 마치 해와 달이 비치는 듯, 十方世界를 환히 비추었다고 한다. 『金光明經』 卷16에 나오는데, 이 金鼓故事로 말미암아 『금광명경』을 '金鼓經'이라고도 한다.
- 12) 『譯註 崔致遠全集(2)』, pp.362~363 「法藏和尚傳」, "聞昔尼父見周公, 高宗得傳說, 信相金鼓, 普眼山神, 皆託靈遊, 能融妙理"

『석순응전』과 『석이정전』은 해인사를 개창(開創)한 조사(祖師)들의 전기라는 점에서, 그가 은거하던 해인사 측의 부촉(附屬)에 의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부석존자전』과 『법장화상전』은 최치원이 사상적·종교적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세도인심(世道人心)을 자임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집필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승전과 구별됨직하다. 이들 두 전기가 우리 나라와 중국의 화엄불교를 대표하는 거장(巨匠)들의 전기라는 점에서 결코 우연히 찬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가 양전(兩傳)의 찬술을 종생(終生)의 임무로 삼았던 데서 입언(立言)의 기본 취지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담긴 내용 하나 하나를 예사로 보아 넘기기 어렵게 한다.

『부석존자전』은 해동 화엄의 초조(初祖)인 의상(625~702)의 전기이다. 비록 현재 전하지는 않지만, 그와 서로 짝을 이루는 『법장화상전』의 내용으로 미루어 그것이 같은 취지에서 찬술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³⁾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두 승전이 그 서술 체계나 구성, 규모 등의 면에서 서로 비슷했으리라고 짐작된다.

『법장화상전』은 중국 화엄종의 제3조인 현수 법장(643~712)의 평생 발자취를 웅대한 필치로 엮은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현수 법장의 전기 자료로는 염조은(閻朝隱)의 비문과 신라 출신 승려 석광엄(釋光嚴)이 찬한 전기 등 대략 20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상세하고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최치원의 『법장화상전』이다. 최치원 48세 때인 신라 효공왕 4년(904)에 찬술된 이 전기는 현수 법장이 입적한 뒤 192년만에 이룩된 것으로서, 현수 법장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전기 자료이다. 원문이 약 7천 6백여 자에 달하는 이 전은 그 상세함과 신빙성, 그리고 현수 법장의 인간상과 종교적 이적(異蹟)을 약여(躍如)하게 그려낸 점이라든지, 화엄의 영험성을 통해 새로운 법장관(法藏觀)을 세우려 했다는 점에서 실로 전무후무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하지 않는 유자의 입장에서

13) 뒷날 여러 史書들에 인용된 내용들을 수습하여 최치원이 찬한 『부석존자전』의 원형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있어 참고된다. 張日圭, 「崔致遠撰『浮石尊者傳』의 復元試論」, 『北岳史論』 제6집, 국민대학교, 1999.

불교의 영험성과 신비성을 크게 부각시켜 인심을 용동(聳動)케 하려 했던 데서 화엄사상에 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였던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최치원이 화엄고승들의 전기를 찬술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법장화상전』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보면, 당시 교종의 대표격인 화엄종에 대한 비난 속에서 이를 옹호하려는 의지를 가장 먼저 읽을 수 있다.

옛적 어진이들은 그 말만 취하고 그 몸을 버리는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도적이라 여겼다. 지금 배우는 이들로 말할 것 같으면, 그 가르침을 받고도 그 행적에 어두우니, 실로 얼굴이 붉어질 일이다. 더구나 조금 알려졌다는 무리들은 간혹 크게 험뜯는 말을 늘어놓아, 전철(前哲)들을 더럽히고 후생들을 현혹시킨다. 비록 염조은(閔朝隱)이 찬한 비문이 있고 석광엄(釋光嚴)이 찬한 전기가 있어도 펴서 살살이 보는 데에는 게으르고 속이는 데 용감하다. 심지어 사학(史學)을 마(魔)의 근원이라 험뜯고 승보(僧譜)를 배척하여 쓸모 없는 물건으로 여기며, (淸涼 澄觀의) 『현담소(玄談疏)』에서 연기(緣起)를 주로 한 것이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화하기도 하였다. 이를 일러 “흥취물없는 친구(讌朋) 사이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法界의) 조상을 욕되게 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좋지 않은 말들이 듣기 싫어) 귀를 막고 달아날 만하다”고 하는 것이다. 어찌 이 몸으로 하여금 편안히 있도록 하겠는가.¹⁴⁾

이것은 최치원의 동북형으로 당시 화엄종의 거장(巨匠)이었던 현준(賢俊)이 최치원에게 『법장화상전』을 찬술해 줄 것을 부촉(咐囑)하면서 한 말이다. 최치원이 본시 가정적으로 화엄종과 인연이 있고, 친형이 화엄 고승이었으며, 또 그 자신이 말년에 해인사에 은거하였던 데서 화엄종과 화엄사상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인식이 어떠하였을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최치원이 중국과 우리 나라에서 화엄의 법등(法燈)을 확고하게 전한 의상과 현수를 쌍벽으로 생각하고 이들의 전기를 찬술하는 데 것처럼 혼신의 힘을 쏟았던 것은, 저들의 사상과 경행(景行)을 통해 화엄에 대한 오해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음은 물론, 말류적인 파벌의식을 불식

14) 『譯註 崔致遠全集(2)』 p.356 「法藏和尚傳」 “且曰：「古賢以取其言，而棄其身，心爲盜也。今學則稟其訓，而昧其迹，顏實覩焉。況有小鳴之徒，或陳大嚼之說，玷汚前哲，眩惑後生，雖復閔朝隱有碑，釋光嚴有傳，惰於披閱，勇在矯誣矣。至有讖史學爲魔宗，黜僧譜爲廢物，及談疏主緣起，或作化人笑端。是謂：「讌朋不無忝祖，可掩而走」，豈俾躬處休?”

(拂拭)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고 할 것이다. 즉, 화엄의 진면목을 널리 전함에 있어, 중국과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화엄대덕(華嚴大德)의 전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방법이요, 또 보다 절실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목적은 보다 더 차원 높은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법장화상전』에서는 그가 화엄의 사유체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정신적·이념적인 측면에서 화엄사상의 우위를 세우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부석존자전』에서는 그와 달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의상이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에서 화엄의 사상적 특성을 '원융사상(圓融思想)'으로 이끌어 냈던 만큼, 최치원 역시 화엄의 원융사상으로 신라 하대의 혼란상과 분열상을 극복하고, 와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를 보지(保持)하려 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지난날 화엄사상이 삼국통일의 정신적·이념적 지주가 되어 '통삼(統三)'의 위업을 완수할 수 있었던 만큼, 신라가 날로 쇠잔하고 후백제나 후고구려가 흥기하던 당시에 있어, 다시 한 번 화엄의 이념에 의해 통일을 기하려는 일념으로 화엄에 심취, 몰입하였음직하다.

한편, 『법장화상전』에서 현수의 충군애국(忠君愛國)하는 정신을 선명하게 그리고 있는 것도 그냥 지나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신공(神功) 원년(697)에 글안(契丹)이 황명(皇命)을 거역하자 군사를 출동시켜 치게 되었다. 특별히 법장 스님에게 조서를 내리되, "경전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도적의 포학(暴虐)을 막도록 하라!"고 하였다. 법장 스님이 아뢰기를, "만약 원적(怨敵)들을 꺾어 굴복시키고자 하면 좌도(左道)의 모든 법을 단속해 주옵소서"라고 하니, 그에 따르겠다고 조서를 내리었다. 법장 스님은 향내 나는 약수로 목욕 재계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 도량(道場)을 세우고 관음상을 모셔 놓은 다음 도법을 행한 지 며칠만에 갈로(羯虜)들이 왕사(王師) 중에서 무수한 신왕(神王)의 무리를 보기도 하고, 더러 관음보살의 형상이 공중에 떠서 이르는 것을 보기도 하여, 개와 염소떼 같은 무리들이 두려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다가〔逗撓〕 달포만에 크게 이겼다는 소식을 알리게 되었다. 축천무후는 우악(優渥)한 조서를 내려 노고를 치하하기를, "(……) 신병(神兵)이 도적을 쓸어 없앤 것은 대개 자력(慈力)의 가피(加被)일 것이다"고 하였다.¹⁵⁾

15) 『譯註 崔致遠全集(2)』, PP.341~342 「法藏和尚傳」 "神功元年, 契丹拒命, 出師討

결국, 그가 말년에 극도로 병약한 몸을 이끌고, 『법장화상전』의 완성을 생(生)의 마지막 임무로 자임하였던 것은 조국 신라에 대한 뜨거운 애국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IV. '普德和尚傳'과 그 思想的 含意

『보덕화상전』은 최치원이 찬한 여러 편의 승전 가운데 고구려 출신 고승의 전기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고, 또 주인공 보덕이 화엄승이 아닌 열반종의 개창자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보덕화상전』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찬술 배경과 동기, 그리고 전기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목적의식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 다만, 최치원 말년의 전후 상황과 몇몇 단편적인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그에 대한 추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보덕화상전』 역시 『부석존자전』 『법장화상전』 등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목적의식 아래 찬술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찬술 시기도 해인사에 은거할 때로 추정된다.

의상과 현수의 전기가 화엄사상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라면, 이 보덕의 전기는 『열반경』에 나오는 평등사상과 '불신상주(佛身常住)'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도교 비판이 그 기저를 이루는 것으로 짐작된다. 최치원이 이처럼 화엄종과 열반종의 사상을 자재하게 넘나들고 있다는 데서 우선 그의 불교적 안목과 학문적 폭이 어떠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겠다.

노용필 씨는 최치원이 보덕의 전기를 짓게 된 배경 내지 동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즉 첫째, 보덕이 신라로 망명함으로써 신라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보탬이 되었음을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일 것이요, 둘째, 엄격한 고품제 아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갈등을 겪어야

之. 特詔藏, 「依經教遏寇虐」, 乃奏曰: 「若令摧伏怨敵, 請約左道諸法」, 詔從之. 法師霽浴更衣, 建立十一面道場, 置光音像行道, 始數日, 羯虜靺王師無數神王之衆, 或矚觀音之像, 浮空而至, 大羊之群, 相次逗撓, 月捷以聞. 天后優詔, 勞之曰: 「(……) 此神兵之掃除, 蓋慈力之加被」.

했던 육두품 출신의 최치원 입장에서는 보덕이 소의(所依)로 하던 『열반경』의 평등사상에 대해 매력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정리하였다.¹⁶⁾ 이 두 가지 다 충분히 수궁이 되는 분석이라 할 것이다. 다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한 두 가지 추가할 것이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종교간의 알력으로 다툼이 생기고, 그것이 발전하여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라와 백성이 결단 날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종교 갈등이 빚어낼 결과를 염려하는 '우환의식'의 발로를 들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앞의 내용과 연결된 것으로 연개소문(淵蓋蘇文)이라는 집정자의 정치적 의도 아래 도교가 숭상된 나머지, 오랫동안 민족의 정신적 지주 구실을 해 왔던 불교가 일조(一朝)에 배척을 당하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도교가 그 지위를 대신하게 됨에, 백성들이 크나 큰 정신적 공황에 빠져들고, 급기야 멸망을 앞당기게 되었음을 강조하려 했다고 하겠다.

뒷날 고려 때 김부식(金富軾)도 보덕화상의 전기를 지었다고 하는데,¹⁷⁾ 『삼국사기』에 보이는 그의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비추어 볼 때 김부식이 보덕전을 짓게 된 동기 역시 최치원과 마찬가지로 짐작된다. 즉, 보덕의 망명을 통해 고구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귀감으로 삼으려 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고구려 멸망과 관련한 김부식의 사론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구려의 시종(始終)을 살펴볼 때, 그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화합하고 많은 백성이 화복할 때는 비록 대국이라도 이를 능히 빼앗지 못했지만, 위정자가 나라에 불의(不義)한 짓을 하고, 백성들에게 불인(不仁)한 행동을 하여 여러 사람의 원망을 사게 된 지경에 이르러서는 무너져서 스스로 떨치지 못했던 것이다.¹⁸⁾

최치원의 『보덕화상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의 '우환의식'을 엿볼 수 있을 듯하다.

16) 盧鏞弼, 「普德의 思想과 活動」, pp.139~140 참조.

17) 『三國遺事』 第三 興法篇, 〈寶藏奉老 普德移庵〉“(……) 眞樂公留詩在堂, 文烈公著傳行世”

18) 『三國史記』 卷23, 高句麗本紀 寶藏王 27年條 史論 “觀其始末, 當其上下和, 衆庶睦, 雖大國不能以取之, 及其不義於國, 不仁於民, 以興衆怨, 則崩潰而不自振”

이제 『보덕화상전』에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을 도교 비판과 평등사상으로 나누고, 이를 최치원 말년의 사상 경향과 관련시켜 논하고자 한다.

(1) 도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구려 말기에 정치적 목적에 의해 도교가 숭상되고 불교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불교 측에서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열반종을 개창하였는데, 열반종이 도교에 맞서기 위해 개창되었다면 우선 그 사상적 특성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관한 것으로는 이기백(李基白) 교수의 논고가 있는데, 그에 의하면 보덕화상이 『열반경』을 주로 강설하고 나중에 열반종까지 개창하게 된 것은 당시 고구려에서 새롭게 뿌리를 내려가던 도교의 불로장생(不老長生) 사상에 대항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 열반종의 교의(教義)였기 때문이라 한다.¹⁹⁾

그렇다면 열반종의 교의는 무엇인가. 『열반경』에 담긴 불교사상의 요체를 몇 가지로 꼽자면, 첫째는 ‘불신상주(佛身常住)’, 둘째는 ‘열반상락아정(涅槃常樂我淨)’, 셋째는 ‘일체중생(一切衆生) 실유불성(悉有佛性)’이라 할 수 있다.²⁰⁾ ‘불신상주’란 석가가 열반에 들어가더라도 결코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실은 영원한 생명에 빛나는 금강불괴(金剛不壞)의 몸이요, ‘열반상락아정’이란 열반의 사덕(四德), 즉 상·락·아·정이야말로 도교에서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의 경지와 비교가 되지 않으며, ‘일체중생 실유불성’은 모든 중생이 이 ‘금강불괴’의 불성(佛性)을 누구나 한결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본다면, 최치원의 『보덕화상전』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마도 도교 비판이 아니었을까 한다. 고구려에서 보덕에 의해 열반종이 개창되었던 것은 실로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이쯤 설명되면 우리는 이 『보덕화상전』을 통해 최치원의 말년의 사상적 경향, 특히 도교관에 주목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최치원은 만년

19) 李基白, 『新羅思想史』(서울: 일조각, 1986), p.18.

20) 李載昌, 『佛敎經傳解說』(서울: 동국대학교, 1982), p.195.

에 이르러 불교에 심취하였다. 그는 신라로 귀국한 이후 도교에 대해서는 열성적 이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줄곧 비판적인 입장에 있었다. 물론 우리 고유의 선도(仙道)에 대해서까지 무관심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귀국 이후의 사상 역정에서 장생불사(長生不死)를 추구하는 도교에 대한 관심이 희박했던 것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도교에 대한 최치원의 인식태도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볼 때, 대체로 사상적 이해의 차원에 머물고 있어, 종교적 차원에서는 그다지 높이 승화되지 못한 것 같다. 또 사상적으로도 유교와 불교에 대한 이해에 비하여 깊이 뿌리박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의 문집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더욱이 귀국 이후에 보여준 도교에 대한 인식은 재당시(在唐時)와는 사뭇 달랐으며, 오히려 유교와 불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욱 깊어졌다. 여기에는 최치원 자신의 학문적·사상적 기호(嗜好)라든지 당나라에서 도교의 말세를 실제로 목도, 경험한 것²¹⁾도 있으려니와, 이와 함께 당시 신라 사회에서 종교적 의미의 도교사상이 불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력을 얻지 못한 데서도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법하다.

최치원은 구시(久視)·경비(輕飛)를 추구하는 신선사상에 대해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듯하다.

저 장량(張良)은 한고조(漢高祖)의 군사(軍師)가 되어, 식읍만호(食邑萬戶)에 봉해지고 열후(列侯)의 위(位)에 오른 것을 크게 자랑하여, 이를 한(韓)나라 승상(丞相)의 자손으로서 더 없는 일이라고 여겼지만, 이것은 (소인배의) 소루(小陋)한 것이리라. 가령 그가 선도를 배움이 시종 한결 같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백일승천(白日昇天)할 수 있었겠는가? 도중에서 그만두고 말았으니,²²⁾ 학의 등 위에 탄 하나의 환신(幻身)이 되었을 뿐이다.²³⁾

21) 그가 도교에 그다지 열성적이지 못했던 데에는, 이미 唐末 道士들에 의한 末流的 폐해를 몸소 보고 겪었던 것이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徐有榘(1764~1845)가 「桂苑筆耕集序」에서, “其居幕數載, 知高駢之不足有爲, 呂用之諸葛殷等之誕妄必敗, 超然引去, 去三年而淮南亂作, 則又有似乎知幾明哲之君子, (……)”라고 한 것은 자못 음미할 만하다.

22) 留侯 張良은 천성적으로 병이 많았기 때문에, 평소 辟穀을 배워 오곡을 먹지 않았고 道引을 행하여 몸을 가벼이 하였다. 그는 늘 공언하기를, “우리 집안은 대대로 韓나라 재상을 지냈는데, (……) 지금은 세 치의 혀로 황제의 軍師가 되어 食邑이

이는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모신(謀臣)이었던 문성후(文成侯) 장량(張良)²⁴⁾이 권귀(權貴)가 극에 달한 말년에, 홀연히 신선 적송자(赤松子)를 따라 놀겠다고 했던 사실에 대해 논한 것이다. 그가 신선술을 비판적으로 본 것이 불비(佛碑)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아니면 신선술의 한계와 말폐²⁵⁾ 때문인지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어찌되었든지 그는 선가(仙家)에서 이른바 '백일승천'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학의 등에 탄 사람'을 환형(幻形)이요 환상(幻想)이라고 했다. 그는 참다운 선인(仙人)이란 범속(凡俗)에서 초탈하여 고결한 성품을 잃지 않은 사람이라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장량처럼 다시없는 극도의 권귀와 영화를 다 누리다가 인생의 종경(終竟)에 이르러 세속 잡사에 염증을 느껴 선도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이 때는 이미 참다운 선(仙)의 경지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최치원은 고변의 덕을 기리는 시 가운데 하나인 「조상청(朝上淸)」에서 “마음 정제(整齊)하기를 게으르지 않으면 저절로 진인(眞人)을 조회(朝會)하게 되리니, 어찌 선도를 닦고서야 인간을 구제하려는가”²⁶⁾라고 하여, 수선(修仙)이란 다름 아닌 '제심불권(齊心不倦)'하는 바로 그 자체라고 하였다. 도교의 상청재(上淸齋)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심재(心齋)'이다. 그가 이 심재를 중시하여 '심재를 하면 언제든지 진인을 만날 수 있거늘, 어찌 꼭 신

萬戶에 이르고 지위가 제후의 반열에 올랐으니, 이는 평민으로서는 최고의 지위이다. 나 장량으로서는 매우 만족스럽다. 그러므로 세속의 일일랑 떨쳐 버리고 赤松子(전설 속의 신선)를 따라 고고히 노닐고자 한다”고 하면서 仙道에 침잠하였다. 그러나, 高帝가 세상을 떠나고 태자(惠帝)의 母后인 呂后가 억지로 음식을 들도록 권하자 하는 수 없이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 『史記』卷55, 「留侯世家」 참조.

23) 『譯註 崔致遠全集(1)』 p.91 「大朗慧和尚碑銘」, “彼文成侯爲師漢祖, 大誇封萬戶位列侯, 爲韓相子孫之極則○矣. 假學仙有終始, 果能白日上昇去? 於中止得, 爲鶴背上一幻軀爾”

24) 최치원은 평소 張良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니, 이는 「대낭혜화상비명」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譯註 崔致遠全集(1)』, pp. 83~84 “彼渭濱老翁, 眞釣名者, 圯上孺子, 蓋履迹焉. 雖爲王者師, 徒弄三寸舌也”

25) 아마도 金時習이 신선술의 말폐를 지적하여, “스스로 제 몸을 保眞할 수는 있지만 世道에는 유익함이 없다”(知神仙, 自保其身, 而無益於世道)고 한 것과 같은 생각이 아니었을까 한다. 『梅月堂集』卷17, 「修真」 참조.

26) 『桂苑筆耕集』卷17, 「七言紀德詩」, “齊心不倦自朝眞, 豈爲修仙欲濟人”

선되는 수련을 한 뒤에야 인간들을 구제할 수 있으리요'라고 반문한 것은, 곧 병곤(兵鬪)을 쥐고 치란(治亂)에 여념이 없는 고변과 그 종사관인 최치원 자신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²⁷⁾ 그는 또 「중원재사(中元齋詞)」에서, “신(臣 : 고변)은 성대(聖代)에 나서 진풍(眞風)을 사모하온 바, 어찌 구시(久視)의 문(門)을 탐내며 경비(輕飛) 하는 길을 엿봄이 있겠습니까?”²⁸⁾라고 하여, 구세제민(救世濟民)에는 도무지 뜻이 없고 불로장생이라는 현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선도에 대하여 그 격을 낮추어 보았다.

혹자는 최치원이 고변에게 올린 시 〈진정(陳情)〉²⁹⁾에서

俗眼難窺冰雪姿 속안으로 빙설 같은 자태를 엿보기 어려워
 終朝共詠小山詞 아침 내내 소산사³⁰⁾를 함께 읊조렸네.
 此身依託同雞犬 이 몸 의탁함이 계견(鷄犬)과 같으니
 他日昇天莫棄遺 이 다음 승천³¹⁾하는 날 부디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한 것을 인용, 도교사상과 결부시켜 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도교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최치원이 도교 신자인 고변에게 뒷날 다른 벼슬로 승진하더라도 자신을 계속해서 써 달라고 하는, 제목 그대로 '진정'의 뜻을 담은 시라는 사실을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요컨대, 위와 같은 최치원의 도선관(道仙觀)에 비추어 본다면, 그가 말년에 우화등선(羽化登仙)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필시 후세인이 그의 불우(不遇)한 말년을 애석해 마지않는 나머지 미화한 사실이라 하겠고, 또 이 밖에 세상에 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설적 설화들도 그의 인격과 학식을 흠모

27) 崔昌祿, 『韓國道教文學史』, 國學資料院, pp.26~27 참조.

28) 『桂苑筆耕集』 卷15, 「中元齋詞」 “臣生逢聖日, 志慕眞風, 寧貪久視之門, 有覬輕飛之路”

29) 『桂苑筆耕集』 卷17, 「獻詩啓」〈陳情〉所收.

30) 중국 漢나라 때 淮南王 劉安이 服食求仙하다가 方士를 만나 승천하자, 회남의 小山之徒가 그를 그리워하여 마지않으면서 마침내 '淮南王歌'를 지어 불렀는데, 이를 '小山詞'라 한다.

31) 淮南王이 仙藥을 먹고 白日昇天하였는데, 그릇에 남겨진 선약을 먹은 개와 닭도 모두 승천하였다고 한다. 葛洪, 『神仙傳』 “淮南王白日昇天, 餘藥器置在庭中, 鷄犬舐啄之, 盡得昇天”

한 나머지 그에 가탁(假託)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³²⁾ 뒷날 여러 후학들이 그를 '유선(儒仙 : 유학자이면서 선인)'으로 일컬었던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³³⁾

한편, 최치원은 『법장화상전』에서 현수 법장의 이적(異蹟)과 화엄의 영이성(靈異性)을 서술하는 가운데, 도교와 도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각시켜 서술하고 있다. 이 역시 그의 도교관과 관련하여 그냥 지나쳐 볼 것만은 아니다.

(……) 일찍이 조주(曹州)의 강장(講場)에서 마침 교종(敎宗)³⁴⁾의 사정(邪正)에 대하여 분변(分辯)하게 되었다. 어느 도사가 도교(玄元)를 헐뜯는다 하여 노기를 품고는 “제법(諸法)이 평등한가, 아닌가?”라고 물으니, 법장 스님은 “평등하기도 하고 평등하지 않기도 하다”라고 대답했다. 또 묻기를 “어찌 두 가지인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진(眞)과 속(俗)이 다르기 때문에 일개(一槩)가 아닌 것이다”고 하였다. 그 도사[黃冠]가 더욱 성을 내어 크게 삼보(三寶)를 꾸짖었다.

이튿날 아침에 얼굴을 씻으려다가 문득 보니, 수염과 눈썹이 손만 대면 떨어지며 갑자기 온 몸에 창포(瘡疱)가 생겼다. 허물을 참회하며 (법장 스님에게) 『화엄경』을 백 번 되풀이해서 전독(轉讀)³⁵⁾해 달라고 하였는데, 경을 절반도 못 읽어서 형질(形質)이 예와 같이 회복되었다.³⁶⁾

32) 이와 비슷한 예가 조선 초기의 金時習이라 할 수 있다. 道敎史書에서는 김시습을 최치원과 마찬가지로 韓國道脈의 中興祖格인 인물로 기술하고 있는데, 사실 그의 도교관을 살펴보면 도교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그 이유는 道敎—특히 神仙術—가 儒·佛과는 달리 長生不死만을 추구하고 인륜도덕을 말하지 않으므로, 결국 非社會的이며 一身의 이익만을 탐하고 있다는 것이다. 李能和가 『조선도교사』에서 소개하였던 김시습의 도교 관계 논문 「龍虎」「服氣」「修真」 등은 사실 도교를 비판하기 위해 지은 것들이다(『梅月堂全集』, 卷17 所收). 이로써 본다면 김시습은 도교사서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도교 비판론자인 셈이다.

33) 최치원의 圓融會通的 사상 경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였던 釋 休靜이 「崔孤雲崗」라는 시에서 “時自壺中出, 向人白頭悲. 性隨山共寂, 身與鶴同歸”라고 한 것도 최치원이 신선이 되었다는 사고가 밀바탕에 깔려 있다.

34) 각 종교의 宗旨, 여기서는 유·불·도 삼교의 중지를 가리킨 듯.

35) 祈願 등을 할 때 많은 경전의 긴요한 부분을 읽어 넘기는 것.

36) 『譯註 崔致遠全集(2)』, pp.339~340 「法藏和尚傳」, “第八科曰(……)嘗於曹州講場, 適辨敎宗邪正. 有道士, 謂訾玄元, 含怒問曰: 「諸法爲平等以不?」答: 「平等不平等」又問: 「何有二耶?」答: 「眞俗異故, 非一槩」黃冠益熨, 大詬三寶, 翌旦顏面欸見, 鬚眉隨手墮落, 遍體瘡疱, 遽來懺過, 願轉華嚴百遍, 讀經未半, 形質復舊”

여기에는 도교에 대한 최치원의 기본적인 인식이 은연중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서 좋을 듯하다. 도교에 대한 최치원의 이와 같은 비판적인 인식은 그가 찬한 『보덕화상전』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2) 平等思想 및 護國思想의 鼓吹

일본의 불교학자 야나기다(柳田聖山)·히라이(平井俊榮) 등에 의하면, 『열반경』의 사상을 한 마디로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래성품(如來性品)」에 이른바 ‘명(明)과 무명(無明)은 둘이 아니다(明無明無二說)’는 설이라 한다.³⁷⁾ 여기서 ‘무이’란 바로 ‘일체중생 실유불성’을 가리키는 것이니 『열반경』의 평등사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중생이 다같이 부처가 될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일체중생 실유불성’은 열반종의 중심사상을 이루는 것이다. 특히 아주 죄많은 존재로서 도저히 구제할 길 없다는 ‘일천제(一闡提 : 斷善根이라 번역)’까지도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하고 있는 것은 『열반경』에서만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열반경』의 만민평등사상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누구나 똑같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인 만큼,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화합, 그리고 이념적 통일을 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또한 골품제라는 사슬에 얽매어 있던 육두품 계열에게 크게 환영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최치원이 시무십여조를 통해 ‘과거제의 실시’를 주장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골품제를 완전히 개혁하라는 것보다 ‘하급귀족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더 강했을 것이므로, 『열반경』에서의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골품제 개혁의 당위성을 외치는 것과는 비교될 바가 아니었을 듯하다. 따라서 최치원이 『보덕화상전』에서 찬술함에 있어, 이것을 핵심적인 것으로 중요하게 다루었을 것임에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열반경』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보이기도 한다.

37) 柳田聖山, 『初期禪宗思想史書の研究』(東京 : 法藏館, 1967), p.240 ; 平井俊榮, 『中國般若思想史研究』(東京 : 春秋社, 1976), p.545 참조.

불법을 수호하는 사람은 칼과 창을 들고 비구를 보호해야 한다.

국왕과 대신(大臣), 그리고 신자들이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 칼과 창을 가지는 것은 결코 파계(破戒)가 아니다.³⁸⁾

일찍이 원광법사(圓光法師)가 귀산(貴山)과 추항(籌項)이라는 두 화랑에게 세속오계(世俗五戒)를 내려 줄 때, 『열반경』의 이 대목을 크게 참고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불교의 파사현정(破邪顯正) 내지 호국사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신라 화랑들의 정신적 지주 구실을 하였던 원광법사가 『열반경』에 밝았음은 우연이 아니었으리라. 요컨대 『열반경』의 평등사상과 호국사상은 『보덕화상전』의 찬자 최치원 자신의 평소 이념을 담기에 여러 면으로 적절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V. 맺 음 말

최치원은 진성여왕 8년(894), 기울어 가는 천년 사직을 붙들고 다시 세우기 위해 시무십여조의 개혁안을 올렸다. 그러나 이 개혁안이 무위로 돌아간 뒤 마침내 해인사에 은거하게 되었다. 그는 은거할 당시 몹시 의기 저상(意氣沮喪)한 일면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세사(世事)에 대한 모든 미련을 훌쩍 내던진 듯하였다. 『법장화상전』 말미에서 “난세에 무슨 일을 이룰 것인가. 칠불감(七不堪)³⁹⁾만 더할 뿐이다”고 한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는 현실 세계에 대한 미련을 버린 듯하면서도, 실은 세쇠도미(世衰道微)한 현실과 관련하여 ‘세도(世道) 회복’에 대한 의욕마저 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다. 「화엄사회원문(華嚴社會願文)」에서는 “아아! 때가 상법(像法)·말법(末法)의 시기인지라, 세속이 경박함을 숭상하여 여러 병통을 없애기 어렵고, 단지 정명거사(淨名居士 : 維摩

38) 安啓賢, 「花郎의 倫理 - 圓光」, 『三國의 高僧八人』 (서울 : 신구문고, 1976), p.28.

39) 嵇康의 이른바 ‘감당할 수 없는 일곱 가지 일[七不堪] 가운데 일곱 번째의 일. 곧 세상일의 번거롭고 수고로움이 心思를 얹어매어 부자유스럽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詰) 같은 이를 우리를 뿐이다”⁴⁰⁾고 하여, 유마거사와 같은 인간상을 던지시 그리워하기도 하였다. 사실 그는 비록 사실상 타의에 의해 은거하게 되었지만, 거사형(居士型) 유자로 남아 있으면서 세도인심(世道人心)을 자임하였던 것 같다.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이 최치원에 대해 ‘장실(丈室의) 유마’⁴¹⁾라 하였거니와,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새길 필요가 있다.

최치원이 유마형 거사로 남고자 했던 데에는 그보다 앞선 선학으로 원효(元曉)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요, 더 올라가 보덕화상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었으리라고 본다. 『대각국사문집』에 의하면, 일찍이 원효와 의상 두 성사(聖師)가 보덕의 강석(講席)에 참여하여 『열반경』과 『유마경』의 오의(奧義)를 친히 물었다고 하며,⁴²⁾ 원효가 보덕으로부터 『유마경』을 수학한 뒤 거사 행각을 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유마경』에 통효하였던 보덕은 최치원에게 있어 적지 않은 관심의 대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최치원은 말년에 이르러 그가 불교에 심취했다. 불교에 심취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유교적 개혁안의 좌절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본다. 그는 이로부터 유교에 회박한 ‘종교성’에 대해 새삼 절감하게 되고, 불교에 관계된 종교활동을 통해 자신의 남은 이상을 펼치려 하였다. 그가 수 편의 승전을 찬술했던 것도 못다 이룬 꿈을 언설(言說)에라도 부쳐 펴 보려 한 데서 비롯되었으리라. 종래의 역사서에서는 최치원이 은거 이후 전국 각지의 명승지를 유력(遊歷)하면서 고운야학(孤雲野鶴)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그는 참으로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는 지식인으로 인식되기에 알맞다. 그러나 최치원의 말년 삶은 은둔이나 배회로 일관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종교와 학술을 통해 마지막 남은 삶을 불사르면서 현실 구제에의 서원(誓願)을 끝내 접지 않았던 지성인이었다.

최치원은 만년에 불교에 침잠하면서 도교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세이익적 성향

40) 『崔致遠全集(2)』, P.272, 「華嚴社會願文」

41) 『西浦漫筆』, 卷下 참조.

42) 『大覺國師文集』 卷17, 「孤大山景福寺飛來方丈 禮普德聖師」, “涅槃方等教, 傳授吾師, 兩聖橫經日(夾註 : 元曉義相, 嘗參講下, 親稟涅槃維摩等)”

이 강한 것이라 하여 비판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부석존자전』과 『법장화상전』에서 화엄의 원용사상과 영이성(靈異性), 화엄고승의 초인간적 신비성 등을 통해 흠어질 대로 흠어져 있는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힘썼다. 특히 『보덕화상전』에서는 장생불사를 추구하는 도교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함과 아울러 한 나라에서 종교적으로 크게 갈등이 있을 경우 마침내 멸망의 길로 들 수도 있음을 넉넉히 시사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현수 법장의 충군애국을 부각시키고 현세 이익적인 도교를 비판한 것도 일맥상통하는 바라 하겠다.

종래 최치원의 도교관을 연구하는 데 주로 사용된 자료는 『계원필경집』에 나오는 수편의 재사(齋詞)들이었다. 이는 최치원이 당나라에 있을 때 지은 것들이요 그것도 고변을 위한 대신 지은 것들이다. 따라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연구 논문들을 보면 이들 자료가 최치원의 전 생애에 걸쳐 통시기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분명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치원의 생애와 사상적 역정을 염두에 두면서 제한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종래 도교사서(道敎史書)에서 최치원을 '한국도교사에 중추적인 인물' 또는 '해동단학(海東丹學)의 비조'라고 했던 막연한 설들은 다시 정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최치원의 『보덕화상전』에는 도교 비판 이외에도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보덕이 '만인평등'을 부르짖는 『열반경』을 소의(所依)로 하면서 불성(佛性)의 보편성을 강조했던 것은, 육두품이라는 신분상의 두터운 벽을 실감해야 했던 최치원에게는 실로 매력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보덕화상전』에는 신분상의 제한으로 인해 개인의 능력이 무시당하는 사회가 아닌, 자신의 능력이 최고도로 발휘되는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염원이 간절하게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보덕화상전』은 보덕의 생애·사상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자료이지만, 최치원의 말년 생애를 정밀하게 고찰하는 데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자료라고 본다.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해 본다.